

우리나라 맞춤형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한다

- 농촌진흥청, 올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계획
- 국산 반려동물 사료 품질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약 602만 가구*로 집계돼 지난 10년 사이 68% 증가했다. 연관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반려동물 먹이(펫 푸드) 시장 규모는 1조 3,3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2022)

** 유로모니터(2020)

반려동물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요구수준이 높아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성분. 생물이 정상적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랜 연구 역사와 기초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에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주요 원료사료에 대한 영양소 이용성 평가, 반려견 품

종별·생애주기별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구명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외 영양표준 자료와 국내 연구 결과를 수집해 국제 수준에 기반한 영양표준 초안을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설정 기준, 국내외 관련 연구 문헌, 국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영양표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국외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와 반려동물 사료 산업 연관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설정되면, 정부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 및 생산 기술 발전으로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산 사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R&D)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신뢰도 있는 영양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 도입은 제도적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연구 분야와 산업계의 기술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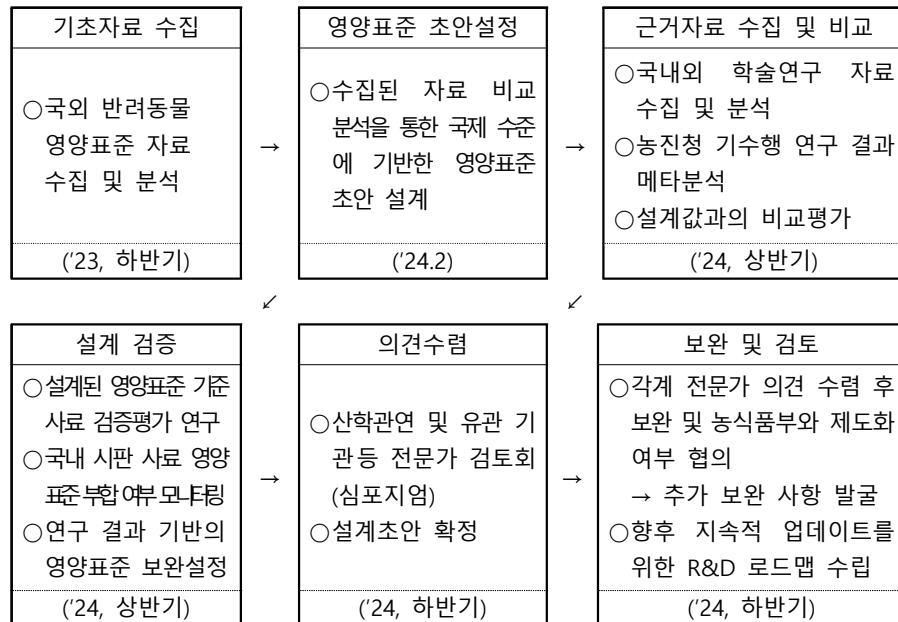
붙임.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책임자	팀장	황성수 (063-238-7050)
		담당자	연구사	김기현 (063-238-7052)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가파른 성장 추세와 더불어 펫푸드 수입도 꾸준히 증가
 - * 펫푸드 수입물량(천 톤): ('16) 53.3 → ('18) 64.0 → ('20) 59.4 → ('23) 59.4
 - * 펫푸드 수입금액(백만 USD): ('16) 171.3 → ('18) 238.9 → ('20) 270.7 → ('23) 307.5
- 농식품부 주관 범부처 합동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비상경 제장관회의, '23.8.9)」에서 반려동물 사료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관리 제도 마련 및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설정
-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설정되어 산업에서 활용
 -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국내 영양표준 설정 도입 필요성 대두

□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로드맵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